

Styrene, 710달러로 60달러 폭등

FOB Korea 700-720달러 형성 ... 중국재고 바닥수준 영향으로

Styrene 가격은 8월8일 FOB Korea 톤당 700-720달러로 60달러 폭등했다.

아시아 Styrene 시장은 중국의 재고가 바닥을 드러내고 미국의 벤젠 및 Styrene 가격이 폭등세를 보임에 따라 7-8월에는 드물게 700달러 선을 넘어서었다.

Styrene 무역상들은 9월 초순 거래물량에 대해 중국기업들에게 at Sight 기준 CFR China 톤당 740달러를 요구하고 있는데, 중국의 Styrene 내수가격도 Shanghai ex-Tank 기준 톤당 7300元에서 7600元으로 300元 상승했다.

Styrene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나프타 가격은 C&F Japan 톤당 235.50달러로 크게 변화가 없는 상태이며, PS 가격도 GPPS 기준 CFR China 톤당 720달러로 50달러 폭등했다.

아시아 Styrene 가격은 FOB Korea가 700-720달러를 형성하고 있고, CFR Taiwan 및 Japan, China가 톤당 715-730달러를 나타내고 있으며, CFR SE Asia는 735-740달러, CFR India는 730-740달러를 형성하고 있어 큰 차이는 없는 상황이다.

한편, 미국의 Styrene Spot 가격은 FOB US Gulf 기준 파운드당 30.00-31.00센트로 톤당 평균 672달러를 형성하며 44달러 폭등했다. 미국의 Styrene 계약가격은 Sopt 가격보다 훨씬 더 높은 파운드당 38.50-40.50센트를 형성하고 있다.

8월 하순 도착 예정으로 미국에서 아시아로 수출되는 6000톤은 FOB US Gulf 파운드당 30센트 이상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구매자들은 4000톤을 추가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Styrene 시장은 벤젠가격 상승을 제외하고는 가격이 폭등할 뚜렷한 요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올랐는데, 벤젠가격 상승에 아시아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것이 가격폭등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 Chemical Daily News 2002/ 08/ 13 >